

제 7 장

성경의 핵심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행 17: 2 - 3, 10 - 12).

바울과 디모테와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갔었습니다.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로마 지방 수도였던 곳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명의 전도자들은 베뢰아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알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열심인 예비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의사 누가가 좀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그는 “귀부인”을 먼저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여성을 추켜 세웠고, 그것이 이제는 여성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교를 단단히 묶고 강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들은 세 안식일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강론했다”(디알레고[*διαλέγω*])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하고 있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적인 진리들이 어째서 승리의 진리인가 하는 이유와 성경의 확증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3에 “뜻을 풀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노이곤(*διανοίγων*)입니다. 그 단어의 어근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귀와 눈과 심령과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열리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교의 여러 종파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감정적인 열광주의를 맞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세상에 그리스도교만큼 합리적인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같은 문장에 있는 헬라어 파라티데메노스(*παρατιθέμενος*)는 “놓다”는 뜻의 티데미(*τίθημι*)와 “함께”라는 뜻의 파라(*παρά*)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흠정역은 이 단어를 “증거하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나란히 두었다,” 즉 그 사람들 앞에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적인 진리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11에서는 베뢰아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쓰인 아나크리논테스(*ἀνακρίνοντες*)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조사하다, 검증하다,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려깊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조사한 후에 “그들 중의 많은 이들이 믿었다”(12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점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멘(*μήν*)이라는 것은 “정말로”라는 뜻의 헬라어 불변화사이며, 운(*οὖν*)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멘(“참으로”)과 운(“그러므로”)이 둘 다 강조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그들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나마 이러한 주석적인 연구로부터 분명한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최초의 결론은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성경이었다는 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섰을 때는 그 손에 성경을 들고 섰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디모데후서 3: 16-4:3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니…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권하라.” 바울은 사역의 중심도, 주변도, 근거도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도 역시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조사해 보고, 판단하고, 검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경의 요약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성경을 세가지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구약은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2) 신약과 복음서의 복음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여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 “누군가가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주님, 왕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선포 :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우선, 옛 계약 즉 구약 성경은 세 가지 방식으로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표상, 분명한 말씀에 의한 서술을 말합니다.

약속에 의하면 누군가가 오십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복음> (原福音, *Protevangeliüm*) 이라고 흔히 칭하는 창세기 3:15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유대교 성경 학자들은 그 구절을 수 천년간 연구했지만 결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후손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후손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이며 주께서 이 세상에 놀랍고 기적적으로 출현하신다는 선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족장 이스라엘이 누워 죽어가면서, 그는 자기 주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유다에게로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 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 누군가가 오실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의 종말을 당했을 때, 그는 자기 백성을 모압 평야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떠나간 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열조들에게로 불리워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는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삼하 7:12, 16). 분명히 진리는 누군가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말라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말 3:1). 누군가가 오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말 4:3). 누

군가가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의 바로 그 삶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마카베오상에서 아주 통절하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가 성스러운 제단 위에 암돼지를 바쳐서 그 피를 취해 온 성전에 다 뿌리고 성전 기구들도 모독하기 위해 그것을 뿌렸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주전 165년에 그 끔찍한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유를 쟁취하고, 그 성전이 재봉헌되었을 때, 그들은 암돼지의 희생제사에 의해 오염되었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마카베오는 그들이 제단과 제단 돌을 들어다가 성스럽고 조심스럽게 성전 곁에(즉, 밖에) 그 돌들을 치워놓고는, 자기들에게 행할 바를 말해 줄 선지자가 올 날을 기다리자고 말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표본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날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이 희생제물이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의 표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을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본입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또 다른 표본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치켜 들었을 때에 묘사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일년 내내 히브리서 9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을 통해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성소의 모형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그의 희생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말로 깨끗해 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문은 그 분이 하늘로 들어가는 길임을 암시해 줍니다. 왼편에는, 즉 성소의 남쪽에는 일곱 촛대가 그 분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며 서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즉 성소의 북쪽에는, 그 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회상시켜 주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 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이십니다. 금향단은 그 분이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시요 중재자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성소의 휘장은 그 분의 몸이며, 마지막에 들로 갈라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다가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적이고, 상세하고, 독특하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다 볼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내 겹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일은 분명히 다윗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오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 52장과 53장을 읽고 계시노라면,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묘사할 때 십자가 밑에서 있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전체 구약 성경은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신약의 확증: 그 분이 여기 계시다

사복음서는 예수를 아주 훌륭하고 놀라웁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복음을 이러한 말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2-23). 그 분이 여기 계십니다!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권능있는 기적의 행사자,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

으로 묘사합니다 - 그리고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존경받는 의사였는데, 자기의 복음서를 대다수 사람들을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대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전해 준 사람이 누가입니다. 주께서 미움받던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야기를 해 준 사람도 누가입니다. 예수께서 피가 땅을 적시도록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고뇌를 묘사한 사람도 누가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슬퍼하며 낙담한 두 제자를 이야기 해 주는 사람도 누가입니다. 실망한 그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잠시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성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 분은 살과 피로 되어 있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으나, 단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율법과 심판과 정죄함이 모세로부터 왔으나, 은혜와 진리와 용서함이, 그리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써 우리 주님은 물로 침례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써, 우리 주님은 갈증을 느끼셨고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써 우리 주님은 배가 고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 분은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써 그 분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픔에 겨워 우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써 악한 자들은 그 분을 상처 입히고, 명들게 했고, 그 분의

수염을 뽑았으며, 가시 면류관을 그 분께 씌워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 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 분은 십자가에 못박히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의 승리의 구세주께서는 죽음과 무덤의 속박을 산산이 부수시고 영원히 하늘에 사시며 통치하십니다! 그 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마음 속에도 살아 계십니다!

요한복음 14:16장의 아름다운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가야 할 것과 그것이 마땅한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주께서는 위로자를 보내 주셨으며, 그 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서도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예수를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충만함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그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전체 성경의 핵심: 그 분은 다시 오신다

성경에 관한 세 번째의, 그리고 마지막의 언약이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선포하는 핵심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곳 보다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학을 다 합해서도, 아마 요한복음 14장 갈피에 떨어진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떨어진 곳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그 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죽음의 흉용한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늙은 현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분이 그에게 위의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리고는 저 세상에 있는 저택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늙은 현자께서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젊은이, 내 이 늙은 마음이 바라는 것이 그런 저택들이 아니오. 나는 복되신 예수님을 뵈고 싶단 말이오!” 그 분이 우리를 위해 오고 계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전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기쁜 소식은 그 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같은 모양으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32). 역사의 종말이 그 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 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3-17).

그 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교였습니다. “잠시 잠간 후면 오실 이

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 10:37). 이것이 또한 주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의 설교였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8).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의 오심에 대한, 또는 주 예수를 “드러내는, 계시하는”(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ἀποκάλυψις])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본문을 인용하면,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계 1:7)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포를 전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이것이 사도 요한의 기도입니다.

제 마음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이든, 주님—오늘이든지, 오늘 밤이든지,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실 것입니다!